

농기계 임대료 '반값' 유지

익산시, 코로나19 장기화로 6월까지 50% 감면

익산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농기계 임대료를 반값으로 감면하는 정책을 이어가기로 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오는 6월까지 6개월 간 농기계 임대료를 50%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코로나19로 농산물 판매 저조, 가격 하락, 외국인 근로자 입국 차질로 영농

철 인력난 가중 등 농가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이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기계 임대료 감면대상은 지역의 모든 농업인이며 농기계 임대사업소 합일, 풍부 등 2곳에서 임대농기계 50종, 493대 전체 기종에 대해 임대료가 감면된다.

지역농업은 코로나19로 직접적이고 심각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 등에 비해 특별한 지원책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번 조치

로 6개월간 1천900여 농가에게 혜택이 돌아가 영농 경영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농기계 임대료 감면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며 "이를 통해 농업인들의 고통이 조금이나마 줄어들고 농촌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4,846건의 임대실적을 올렸으며 지역의 많은 농업인에게 반값 임대료 혜택을 제공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익산 남부권, '빛이 흐르는 친수공간' 조성

동산동 대간선수로에 경관디자인 입혀

익산 남부권에 시민들이 힐링할 수 있는 친수공간이 탄생해 눈길을 끌고 있다.

6일 시에 따르면 100년 된 근대유산인 동산동 대간선수로에 경관 디자인을 입혀 시민들이 쉴 수 있는 친수공간으로 조성했다.

이번 사업은 "전라북도 경관디자인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지난해부터 2년간 동산동 대간선수로변에 산책길 아간경관과 수변경관을 조성하는 공사가 진행됐다.

동산교부터 행복복지센터까지 대간선수로변 770m 구간에 '강결'로 흐

르는 금빛, 은하수로 라는 디자인 컨셉으로 보행테크와 농로에 블라드등, 감성글라스조명, 물방울조명, 별자리조명, 교량조명 등 경관조명을 설치해 아간경관을 연출했다.

또한 노후된 옹벽을 깨끗하게 개선하고 메타세콰이어숲과 수로, 너른 들판을 조망할 수 있도록 산책길 중간중간에 쉼터를 조성했다.

특히 아간경관 조성 시 주변의 주거지와 농업지에 빛 공해를 최소화하고 편안한 느낌을 줄 수 있도록 따뜻한 색온도의 조명과 간접조명 방식을 사

용해 대간선수로변의 자연경관과 조

화를 이룰 수 있도록 했다.

동산동 대간선수로변은 도시에 연결된 유일한 수변공간으로 도시의 인공경관과 농촌의 생태경관을 함께 조망할 수 있는 곳이다.

지난해 2월 시 경관계획에 따라 '대간선수로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지정됐으며 메타세콰이어길의 보행테크와 수로 제방을 이용해 많은 시민이 산책 등 여가를 즐기기에 모이면서 경관 개선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시 관계자는 "은하수로는 메타세콰이어길, 너른 들녘을 조명하며 산책을 즐길 수 있는 곳이다"며 "아름다운 경관 조성을 통해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친수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익산 송림사 일원, '산불 예방 숲' 조성

5월까지 산불 취약지역 주변 50ha 사업 추진

익산시가 산불 취약지역인 송림사 일원에 산불 예방 숲을 조성해 체계적인 관리에 나선다.

시는 5일 송림사 주변 산립 50ha에 기존 숲 가꾸기와 차별화된 산불에 강한 숲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최근 산불로 인한 생활권 피해가 확대되고 대형화되는 추세에서 산불을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 저감을 위한 숲 관리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올해 처음 실행되는 사업이다.

시는 산불의 체계적 관리와 효과적 대응을 위해 1억원(국비 5,000만원, 도비 1,500만원, 시비 3,500만원)을 확보했으며 이달 실시계획영역과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거쳐 다음달부터 5월

까지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보물 제825호인 보광전이 있는 송림사는 밀도 높은 소나무 단순림으로 둘러싸여 있어 산불에 취약한 환경으로 구조적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소나무 등 침엽수가 활엽수에 비해 수분 함량이 적고 송진과 같은 기름 성분이 더 많아 산불에 상대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산불에 취약한 소나무로만 이루어진 단순한 산립지역에 화재에 강한 은행나무, 동백나무 등 수종을 선택하여 조림하고 나무의 밀도 조절과 산불 발생 시 연료 역할을 할 수 있는 부산물 수집을 통해 산불에 강한 건강한 숲으로 조성하면 산립이 구조

적으로 안정되고 산불로부터 시민의 안전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사한 사례를 살펴보면 화순 운주사 주변에 지난 2006년 숲 밀도조절과 부산물 수집 등 숲 가꾸기를 추진해 2008년에 산불 발생 시 사할까지 번지지 않고 막을 수 있었으며 미국과 일본 등지에서도 대형산불 방지를 위해 산불예방 숲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다. 정현을 시장은 "최근 산불이 연중화·대형화되는 추세에서 중요 문화재 소실 등 피해의 사전예방과 피해 저감을 위한 숲 관리가 필요하다"며 "산불예방 숲 조성으로 산불에 강한 산립구조를 갖춰 재해에 안전한 익산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강원대학교 연구 결과에 따르면 숲가꾸기 실행하지 않은 곳은 실행한 곳보다 ha당 임목 분수가 많고 수관 율폐도가 10~40% 높아 산불에 취약한 것으로 분석됐다.

/익산=장양원 기자



군산대 산학협력단과 주식회사 이스턴웨어는 최근 군산대학교 산학협력관에서 '슈퍼컴퓨터를 활용한 디지털포렌식 분야의 법·기술적 발전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슈퍼컴퓨터센터 구축 공동 협력

군산대 산학협력단-이스턴웨어, 산학협력활성화 협약 체결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주식회사 이스턴웨어는 최근 군산대학교 산학협력관에서 '슈퍼컴퓨터를 활용한 디지털포렌식 분야의 법·기술적 발전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체결식은 군산대 김영철 산학협력단장, 권양섭 교수, 설남오 전략기획본부장, (주)이스턴웨어 김태현 대표 등이 참석했다.

협약의 주된 내용은 ▲디지털포렌식 법·기술지원 및 컨설팅 ▲슈퍼컴퓨터를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 ▲슈퍼컴퓨터센터 공동 운영 ▲기타 산학공동 연구 분야의 상호협력이다.

(주)이스턴웨어의 김태현 대표는 협약식을 통해 "군산대학교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인 로빗(주)에 슈퍼컴퓨터를

현물 투자하여 회사를 공동으로 운영하고 슈퍼컴퓨터센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주)로빗의 대표를 맡고 있는 권양섭 교수는 "디지털포렌식과 인공지능 및 암호화 분야에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시장을 선도하겠다"고 언급하였고, 김영철 산학협력단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디지털 뉴딜 시대에 부응하는 군산지역의 신산업 육성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 협약은 디지털 포렌식 및 빅데이터 분석 분야의 법·기술적 교류를 통해 관련 분야 산학공동연구를 이끌어 낼 것으로, 인문사회분야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군산=남현봉 기자

군산, 황금들판 만들기 프로젝트 추진

맞춤비료 권장량 사용 캠페인

군산시농업기술센터는 군산쌀의 명성유지와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고품질쌀 생산 황금들판 만들기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삼한 기상이변을 겪으며 비료량을 적량보다 많이 투여한 논을 중심으로 도복과 병해충 피해가 심각하게 나타났다. 평년대비 12.3%, 전년 대비 11.5% 수량감소를 가져왔으며, 미질도 하락해 밥 맛 좋은 쌀 생산에 차질을 빚었다.

이에 시는 황금들판 만들기 대농민 운동을 전개해 벼 재배에 맞춰 적기에 적량의 비료 사용과 물관리를 철저히 시행해 태풍에 도복되지 않는 풍년농

사를 위한 농민 교육에 나섰다.

시는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농업인학습단체 월례회의, 이장단회의 등 농촌사회 거점 농업인들에게 과비사용 자제를 통해 군산쌀 브랜드 이미지를 높여 소비자가 믿고 구매할 수 있는 명품쌀을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질소량 기준 300평당 밀가루 6.6kg, 이삭거름 3.0kg 시 맞춤비료 권장량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미정 기술보급과장은 "꼭빛 가을하늘 아래 누렇게 익어가는 황금들녘을 생각해 보면, 보기만 해도 구수하고 맛있는 군산쌀의 품미를 소비자가 즐길 수 있도록 최고품질쌀 생산을 위해 지도역량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군산=고병만 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 모범음식점·맛집 28개소 방역물품 지원

군산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및 코로나19 확산 따라 지역 내 상수도 사용료 미감면 모범음식점·맛집 28개소를 대상으로 방역물품을 지원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방역물품은 체온측정이 가능한 자동 손 소독기로, 손 소독제 분사 시 적외선 센서가 작동해 체온이 계기판에 표시되며 설정온도 이상일 경우 자동 경보가 울려 체온이 높은 사람에 대한 식별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음식점을 이용하는 손님 및 종사자들의 교차오염 방지는 물론 손님에게 일일이 발열체크를 해야 하는 수고로움을 덜어줘 매장 내 방역 실천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방역물품 지원을 통해 식당 이용객과 종사자들이 코로나19의 감염 우려 속에서도 안심하고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안전한 외식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고병만 기자

익산시, 석면 피해 예방 슬레이트 철거 등 지원

익산시는 발암물질인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후 슬레이트 철거와 지붕개량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15여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392가구(지붕개량 36동 포함)를 지원할 계획이다.

슬레이트 철거의 경우 주택과 부속건물은 최대 344만원을, 창고 및 축사는 50㎡ 미만은 172만원, 50㎡ 이상은 최대 688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되며 한도 초과 시 자부담이 발생한다.

지붕 개량의 경우 가구당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며 취약계층은 슬레이트 철거와 지붕개량 사업비용을 전액 지원한다.

시는 사업 추진 시 사회취약계층을 우선 선정해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신청은 건축물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이번달 15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익산=장양원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